

“손님은 줄고 보안비는 늘고”... 동네 금은방, 생존 기로

소비위축·범죄 우려 등 삼중고... 결혼 특수 옛말 ‘장신구’→‘자산 투자’로 소비 개념 변화도 한 몫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동네 금은방은 되레 손님이 끊기며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결혼 성수기를 맞아 기대했지만 고물가와 증등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대형 거래소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공세, 범죄 표적까지 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금거래소 기준 순금 1돈(3.75g) 살 때 가격은 97만7000원. 팔 때 가격은 81만5000원으로 전날 대비 각 1만 1000원, 4000원 떨어졌다.

여전히 금값이 100만원 안팎을 유지하면서 ‘금값 전성시대’가 도래했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금은방은

오전부터 금반지나 금목걸이 등을 진열장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며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금은방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을 없었다. 간혹 가게를 찾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품 가격과 금 가격을 묻고 갈 뿐 제품을 구매하는 손님은 없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5월을 맞아 호황을 기대했지만 주요 수입원인 예물 세트 구매가 최근에는 간소화되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이마저도 옛말이 됐다.

10여년 가까이 점포를 지켜온 김모씨는 “금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는 줄어들었다”며 “금을 사는 이들도 없거나

와 파는 사람도 없다. 요즘 같은 불황은 처음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돈에 100여만원에 이르는 금을 어떻게 사겠느냐. 최근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지인들을 보면 예물로 커플링 하나 정도만 한다”며 “여유가 있어야 귀금속에 눈길을 보낼 텐데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다”고 말했다.

남구에 위치한 금은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결혼 예물과 돌잔치 수요로 북적였지만 이제 ‘개점휴업’ 상태에 가까운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금은방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60대 정모씨는 “예전에는 하루에 몇 팀 씩은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많다”면서 “금값은 올랐는데 장사는 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기업형 거래소의 등장도 자본이 적고 동네 상권에 있는 금은방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실시간 시세 공개와 낮은 수수료, 비대면 거래 확산이 맞물리면서 지역 금은방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은 금을 ‘장신구’보다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예물·귀금속 중심이었던 기존 금

은방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대형 거래소와 디지털 플랫폼은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금은방 업체들은 금값 상승에 따른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며 커지는 불안감에 보안 강화에 필요한 추가 비용 부담까지 떠안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금은방이 지역 상권의 대표 업종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과 가격 경쟁, 보안 비용 증가, 소비 감소까지 한꺼번에 겪는 상황이다”며 “동네 금은방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한전, 에너지 스타트업 발굴 ‘기후테크 창업경진대회’ 경연

한국전력공사가 기후테크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본격 나섰다.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KEPCO 창업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최종 경연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전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기후테크·에너지 분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스타트업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진행됐다. 분야는 기후테크·에너지 창업 아이디어, 한전 유망기술 활용 비즈니스모델(BM) 콘테스트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기후테크·에너지 창업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파이스피어(대표 강병주)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이디엠가넷(대표 김호민)과 에스피디(대표 정계조)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정승민 대표와 이주태 대표에게 돌아갔다. 한전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부문에서는 ㈜카본밸류(대표 고덕수)가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에너지넷(대표 윤재호)과 ㈜에코스(대표 배운호)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그리네플(대표 이형술)과 ㈜선진환경(대표 이강우)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에는 한전 사장상, 우수상에는 한국표준협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2026년 대국민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기자단은 오는 11월까지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소상공인 지원 현장과 정책사업을 직접 취재하고, 블로그·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소상공인 정책·현장 목소리 국민이 전한다

대국민 SNS 기자단 발대식... 11월까지 온·오프라인 활동

국민들에게 소상공인 정책과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SNS 기자단이 첫 발을 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2026년 대국민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국민 SNS 기자단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이 직접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을 취재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홍보와 소상공인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기자단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소진공 소개 및 사업 안내, 활동 및 미션 안내,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기자단은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간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소상공인 지원 현장과 정책사업을 직접 취재하고, 블로그·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주요 취재 분야는 ‘모두의 창업: 로컬 트레’ 등 창업지원 사업,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별 우수 사례와 현장 체험 중심 콘텐츠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소진공은 올해 기자단 운영을 통해 총 500건 내외의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로그 기자단은 월 2회 이상, 유튜브 기자단은 월 1회 이상 영상·이미지·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또 참여자에게는 활동비와 웰컴 키트가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도 시행할 계획이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대국민 SNS 기자단이 국민의 시각에서 소상공인 정책과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금호타이어, 독일 ‘TTC 2026’ 출격

겨울용·초고성능 타이어 등 주력 제품 20종 공개

금호타이어가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글로벌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쾰른 2026’에 참가한다. 전시 제품은 썸머, 윈터, 울스존, 트락·버스용 등 총 7개 카테고리에서 선별된 주력 20여개 제품이다.

‘더 타이어 쾰른’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타이어 전문 전시회로, 글로벌 주요 타이어 제조사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행사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 컨셉을 ‘Innovation to build the future’로 설정하고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타이어 기술 혁신과 지능형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상의 안정성과 완벽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금호타이어는 여름용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 ‘엑스타 HS52’ 제품과 겨

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 등을 선보인다.

특히 엑스타 스포츠 S 및 엑스타 스포츠는 고성능, 고출력 차량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로 유럽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유럽 특화 제품인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는 최근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드’가 실시한 2025년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글로벌 51개 브랜드 제품 중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회에 유럽 지역 주요 거래선을 초청하고,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전시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의 미래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



독일 ‘더 타이어 쾰른’ 금호타이어 부스 조감도

컨벤션홀 임대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